

“천부적인 타격”... 믿고 쓰는 ‘특급조커’ 째

좌우·언더핸드 투수 상대 3할대 타율
투수 가리지 않는 타격감... 대타 구상
“수비는 더 끌어올려야” 냉정한 평가도

PREMIER 12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에 출전하는 야구국가대표팀에는 한국야구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선수들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K T 위즈 소속 외야수 강백호(20)는 가장 어리다. ‘대표팀 막내’가 ‘괴물타자’의 새로운 별칭이다.

강백호의 파워 넘치는 스윙은 프로에 데뷔한 지난해부터 정평이 나왔다. 프로 첫 타석 홈런으로 시작한 138경기에서 타율 0.290, 29홈런(12위), 84타점의 성적으로 이번 없이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올해는 시즌 중반 손바닥 부상으로 고전했음에도 116경기에서 타율 0.336(5위), 13홈런, 65타점을 올리며 ‘2년차 징크스’마저 극복했다.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경문 감독 역시 강백호의 천부적인 타격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프리미어 12 예선 라운드 C 조 경기(11월 6~8일)가 펼쳐질 고척스카이돔에 입성한 28일은 물론 상무와 연습경기를 치른 29일에도 강백호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다. “타격 능력은 정말 뛰어나다”고 칭찬하면서도 “수비는 더 끌어올려야 한다. 수비가 돼야 선수생명도 길어진다”는 냉정한 평가를 잊지 않았다. 고교 시절까지 주로 투수와 포수로 활약한 만큼 외야 수비력을 향상시켜야 대표팀에서도 한 자리를 꿰찰 수 있다는 의미다.

확실히 강백호는 대표팀에서도 아직은 적응이 필요한 나이다. ‘대표팀 경력’을 좀더 쌓을 필요가 있다. 당장 이번 대표팀의 외야 라인업을 살펴봐도 분명해진다. 한국시리즈 우승 반지를 건 김재환, 박건우(이상 두산 베어스)와 더불어 이정후(키움 히어로즈), 김현수(LG 트윈스), 민병현(롯데 자이언츠)이 자리 잡고 있다. 김재환이 지명타자로 빠지고, 김현수가 1루수로 옮기더라도 공수를 겸비한 박건우,



KT 강백호는 프리미어12 대표팀의 ‘막내’다. 천부적인 타격 능력을 인정받아 선발됐다. 김경문 대표팀 감독이 기대하는 역할은 특급 조커다. 투수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장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어 중요한 순간 대타로 출전할 전망이다. 29일 상무와의 연습경기 때 득점으로 성공한 뒤 덕아웃에서 선배들의 환영을 받는 강백호. 고척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이정후, 민병현이 외야 세 자리를 차지할 공산이 높다. 김 감독 역시 “평년(선배)들의 경험”을 우선하고 있다.

결국 강백호는 대타요원으로 자신의 첫 프리미어 12를 맞이할 전망이다. 투수의 유형을 가리지 않는 출중한 타격 실력을 갖추고 있기에 ‘특급 조커’로 기대를 모은다. 올해 좌·우·언더핸드투수를 상대로 각각 타율 0.354, 0.307, 0.450을 기록한 강백호다. 홈런은 좌투수에게 2개, 우투수에게 10개를 빼앗았으나 나머지 1개는 언더핸드. 어떤 상황에서든 믿고 꺼낼 수 있는 대타 카드가 될 수 있다.

올해 프리미어 12에는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다. 11년 전 ‘베이징 키즈’가 내년 올림픽 무대의 당당한 주역이 되려면 먼저 예선 관문부터 뛰어넘어야 한다. 강백호의 활약과 성장을 지켜보는 재미가 이번 프리미어 12에 있는지 모른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대표팀 주축 박종훈 “빨리 실전무대 서고 싶다”

상무와의 연습경기 3이닝 무실점
“공인구 적응 끝... 변화구 문제없다”

박종훈(28·SK 와이번스)은 어느덧 대표팀의 단골손님으로 자리 잡았다.

마치 손이 땅에 닿을 듯한 낮은 각도에서 투구하는 언더핸드 투수의 이점이 국제대회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한다. 과거 국제대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던 정대현(현 동의대 코치)의 역할을 물려받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11월 6일부터 시작하는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에서도 그의 비중은 작지 않다.

대표팀 김경문 감독도 일찌감치 그를 선발 카드로 낙점했을 정도로 믿음이 크다. 29일 국군체육부대(상무)와 연습경기에서 3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펼치며 기대감을 더욱 키웠다.

언더핸드 투수에게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투구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구속이 빠르지 않은 대신 공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것이 성공의 키다. 그만큼 대회 공인구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대표팀의 언더핸드 투수 다카



박종훈

하시 레이(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이번 대회 공인구로 훈련을 마친 뒤 “공이 떠오르는 느낌이 들고, 슬라이더의 휘는 각도를 조절하는 데 용이하다”는 생각을 전한 바 있다. 다카하시와 같은 유형인 박종훈은 이에 대해 “KBO리그의 공인구와 비교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변화구를 던지는 데도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자신했다.

몇몇 실전 투구에 대한 기대감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몸 상태도 문제없다”며 “빨리 본 무대에 서고 싶다. 재미있을 것 같다”고 의욕을 불태웠다. 표정에 자신감이 묻어났다.

이번 프리미어12 공인구 공급업체는 일본 사사키(SSK)다. 그러나 KBO리그 1군 공인구 제조업체 스카이라인이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계약을 맺어 공을 납품한다. KBO 공인구 AAK-1000과는 모델이 달라 크기, 반발력에는 작은 차이가 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로또플레이 17억 1등 당첨자 또 배출! 가입문의 1666-6645

로또1등 총 246회 배출! 로또1등 당첨자들 비결은 로또플레이!

신세 당첨인증!

877회 17억 1등
1년 골드회원 가입 3주만에!

동행복권 **lotto Lotto 6/45**

제 877 회
발행일 : 2019/09/21 (토) 18:48
추첨일 : 2019/09/21 (토) TR:1512582900

17억 1천만원 1등 당첨!

미지혜 (1년제 골드회원) 실제 1등 당첨!

A 수	동	01	22	26	35	39	43
B 수	동	05	17	18	22	23	43
C 수	동	02	05	11	26	28	31
D 수	동	10	11	23	24	33	35
E 수	동	03	09	20	22	39	45

1년제 골드회원 가입 후 3주만에 17억 1등 당첨!
17억 1등 당첨금 부모님 맘 치료바로 사용한다..!

사진과 후기를 전하며 ‘로또플레이’의 신뢰성과 분석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또플레이’는 요행을 넘어 정확한 통계와 확실한 당첨 사례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또정보 업체다.

로또플레이는 한국 브랜드 고객 만족 지수 1위,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 한국 소비자 선호도 1위 외 총 15개 부문 대상 수상을 하였고, 실제 1등 당첨자를 꾸준히 배출하면서 지금까지 1등 246회, 2등 1,295회, 3등 43,240회 조합을 배출해내고 있다. 실제 1등 당첨 복권과 당첨금 지급 영수증까지 공개하고 있어 신빙성까지 더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1등, 2등, 3등 당첨 후기들은 로또플레이(lottoplay.co.kr)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로또플레이’는 골드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님들께 10년이 넘는 분석 노하우와 자체 개발한 1등 분석 시스템(통계기반)을 통해 분석 번호를 매주 핸드폰 문자로 전송해 준다. (20게임/수량 변경 가능)

로또플레이 골드회원 가입 비용은 6개월 62,000원, 1년 88,000원, 3년 158,000원으로 대표번호 1666-6645 전화 한 통으로 가입이 간편하다. (카드 무이자 5개월 할부 가능)

홈페이지 : LOTTOPLAY.CO.KR
가입문의 : 1666-6645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17억 1등 당첨 영수증

로또플레이 가입문의 1666-6645